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

이재용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환시킨다.”

마셜 맥루한의 말이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기의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급격하고 빠른 기술혁명을 겪었다. 또한 최근 년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급격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혁명을 경험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첨단미디어, 즉 컴퓨터/인터넷과 결합한 사이버 미디어는 과거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 심각한 패러다임의 도전을 주고 있다.

맥루한은 미디어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사람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주목하는 시각은 미디어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계나 도구,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모든 책임과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 종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칼을 대신하고, 원자폭탄이 만들어 지는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통신의 발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된 지구촌에서 인간은 첨단기술을 운영하고 지배하며 살지만 동시에 첨단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니콜라스키는 컴퓨터 스크린이 엄청난 물량과 편리함으로 사람들의 의심을 쓸어버린다고 표현했다. 일상생활 깊이 침투한 사이버 미디어는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인식과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만들어 낸 첨단 사이버 미디어가 보이는 역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독의 형태로 나타난다. 온라인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채팅중독, 온라인커뮤니티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이 그것이다. 이런 중독 현상은 의지나 절제력이 약한 청소년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책상 위 고정 된 모니터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처럼 휴대용 모니터로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이버 미디어를 완전히 끊고 살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모든 문화와 인프라가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와 깊이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사이버 미디어를 떠나 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소외를 각오해야 한다. 사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의 삶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된다. 돈과 물질, 섹스와 권력 같은 고전적 우상들처럼 사이버 미디어가 우리들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다.

문화, 정치, 교육, 경제 서비스들 대부분이 온라인화가 진행되었고 진행 중이다. 인류가 쌓아온 정보와 지식 역시 책과 신문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놀기보다 인터넷 게임을 즐긴다. 현대인은 온종일 모니터를 쳐다본다. 일을 할 때도, 오락을 즐길 때도, 관계를 구축할 때도. 부모나 친구의 얼굴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쳐다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의 삶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된다. 돈과 물질, 섹스와 권력 같은 고전적 우상들처럼 사이버 미디어가 우리들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고 모니터가 주인이 될 때, 사람들은 그 허상 속에서 자신을 탐닉하고, 애써 자기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며, 그 공간에 몰입되고 중독 되어 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버 환경에 중독 되지 않고 올바르게 즐길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철저한 자기객관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이버 미디어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을 경우,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적 삶에 대한 충실도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생활의 건강성을 진단할 힘이 필요하다. 현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이버 미디어에 중독되었는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중독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다른 제 3자의 잘못이나 핑계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하는 자기객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문화를 바라볼 때 이 세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그 흐름을 주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가짐이 사이버세계를 대할 때도 필요하며, 그러한 시도 가운데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둘째,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

현실의 삶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갈 때, 너무 바쁘거나 혹 너무 지루하거나, 절망적이거나 혹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 방심의 틈으로 중독이 파고든다. 반면 건강한 삶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은 사이버 환경을 올바르게 즐기는 건강체질을 만든다.

사이버 환경은 가상과 현실이 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허상이 진실을 대체하고 왜곡과 가공된 이미지가 권력을 가진 세계다. 그 세계에 중독된 개인을 현실로 끌고 오는 힘은 바로 삶의 역동성과 즐거움에 있다. 사이버 환경의 깊은 이면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의 존재감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과 소외되지 않으려고 사회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블로그, 소셜네트워킹, 메시징, 커뮤니티 모임, 심지어 게임에서도 그대로 표출된다.

반면 현실의 만남을 온라인상의 만남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태도가 순기능적인 온/오프라인의 균형을 이루게 하며 사이버 환경에 중독되지 않게 해준다. 만약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과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고 접촉하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왜곡된 관계성이 생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온라인상의 관계성은 결국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모든 친구는 진실한 관계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만든 관계일까?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현실적 만남의 연장일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어떤 오락과 활동도 오프라인에서의 운동성이 우선되어야만,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만 집착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참여는 자아도취의 연장일 수도 있다.

셋째,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미디어를 알아가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사이버중독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즐길 수 있다. 사이버공간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즐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사이버 환경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다. 연약한 개인이 골리앗을 대면한 다윗처럼 거인과 맞설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받는 곳이다. 반면, 정제되지 않은 욕망과 폭력이 상존하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혼재하는 곳이다. 이런 속성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지혜를 필요하다. 이럴 때 사이버중독은 설 자리를 잃는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읽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자세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이버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편견만 쌓일 것이고, 편견은 무지와 소외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현실의 만남과 활동에 소극적일 때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주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채팅과 문자 메시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깊이 있게 인생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사이버 환경이 만들어낸 위험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현실의 세계에서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 세계를 관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낯선 사이버 세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반쪽이 될 수도 있다.



이재용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IT/통신분야에서 17년간 일했다. 포스데이타, 삼성전자를 거쳐 미국스프린트(Sprint), BT(British Telecom), 싱가포르텔레콤(Singapore Telecom)등에서 근무했으며, 캐나다로 이주한 후 밴쿠버 Trinity Western University 신학대학원(CTS)에서 DCS(Diploma in Christian Studies)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PCCplast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한 현대에서 사이버스페이스가 만들어 가는 변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2011년 봄에 『IT전문가 가족의 사이버중독탈출기』를 출간한 바 있다.